

2 0 1 1 교 회 재 정 세 미 나

보고 싶은 재정
믿고 싶은 보고



재정보고의 정식

일시_ 2011년 11월 10일(목) 오후 3시 ~ 6시 30분

장소_ 명동 청어람 소강당
(4호선 명동역 3번 출구)

주최_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 0 1 1 교 회 재 정 세 미 나

보고 싶은 재정
믿고 싶은 보고



재정보고의 정식

일시_ 2011년 11월 10일(목) 오후 3시 ~ 6시 30분

장소_ 명동 청어람 소강당
(4호선 명동역 3번 출구)

주최_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1 교회재정세미나

재정보고(財政報告)의 정석(定石)

보고 싶은 재정, 믿고 싶은 보고

일시: 2011년 11월 10일(목) 오후 3시 - 6시 30분

장소: 명동 청어람 소강당

주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행사순서

시간	프로그램	진행 및 강연자
15:00-15:20	환영과 인사	오세택 목사 (교회개혁실천연대)
15:20-16:00	기조강연	정재영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16:00-16:20	사례발표 1	윤병환 사무장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16:20-16:40	사례발표 2	조제호 사무처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
16:40-17:10	모범예시	최호윤 회계사 (나눔과셈, 제일회계법인)
17:10-17:50	그룹별 Q&A	황병구 본부장 (재단법인 한빛누리)
17:50-18:30	전체토론	정재영 교수, 윤병환 사무장, 조제호 사무처장, 최호윤 회계사

자료집 목차

취지문	03
기조강연 정재영 교수	04
사례발표 1 투명성을 강조한 교회 사례_ 윤병환 사무장	12
사례발표 2 책임성을 강조한 단체 사례_ 조제호 사무처장	15
모범예시 300명 규모 교회의 3년간 실제 자료를 기반으로_ 최호운 회계사	29
그룹별 Q&A 및 전체토론 황병구 본부장	38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소개	39
재정세미나 정석시리즈 목차	42

취지의 글

교회의 재정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기초이자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의미 있는 발걸음을 계속해왔습니다. 감사의 정석, 예산의 정석, 회의의 정석 시리즈에 이어 올해는 '재정보고의 정석'으로 교회의 재정건강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숫자의 나열은 진정한 재정보고가 아닙니다. 보고를 받는 회중이 이해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는 내용은 정보가 아닙니다. 무엇을 바로 잡고 어디를 응원해야 하는지 공동체가 함께 실감하도록, 일꾼들을 신뢰할 수 있고 사역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친절한 보고의 달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의 살림을 누구에게나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는, 나눔과 섬김의 사역이 더 탄탄해지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애매하고 모호한 용어가 명료하고 간결해지는 재정보고의 정석,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기조강연



정재영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재정 보고

1. 들어가는 말

한국 교계에서 가장 다루기 민감하면서도 가장 많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헌금과 재정이다. 나름대로 건전한 성장을 이룬 교회가 헌금이나 재정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하루 아침에 조롱거리와 비난의 대상이 되고, 대형 교회들의 경우 크고 작은 재정 문제로 구설에 오르기도 한다. 또한 여러 가지 조사에서 기독교인들은 헌금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곧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교회 재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문제에 매우 민감하면서도 직접 거론하기는 꺼려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가계에 대해서 묻는 것은 실례로 여겨지며, 심지어는 취업을 할 때조차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고 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예산 문제는 단체의 수장인 사람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 이에 관심을 갖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현실이다. 특히 교회에서는 재정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바친 헌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신성한 의미 때문에 이를 다룬다는 것이 자칫 불경스럽게 여겨질까 싶어 매우 조심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교회가 공동체라는 점에서 생각해볼 때, 교회 재정의 사용에 대해서 소수의 특정인이 권한을 갖고 은밀하게 집행하기보다는 교회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두분의 교인들은 교회의 헌금이 얼마가 되며 이들이 어디에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교회 재정의 대부분이 평신도들의 헌금에 의해 구성되므로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교회 재정이 신성한 헌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회 재정을 성경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 못지않게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교회 구성원인 신도들에게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도 공신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재정 보고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재정 보고를 하지 않거나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교인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거나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교회 재정 보고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교회의 재정과 교회 공동체

우리나라 전체 기부금 중에서 80%는 종교단체의 헌금이다. 우리 국민은 2006년 약 6조 2100억 원을 종교계에 헌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헌금액은 12년 전보다 116%나 늘어 같은 기간 도시 가구의 경상소득 증가율 47.2%를 크게 앞질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가구당 약 38만 8,300원을 종교 관계비로 지출했으며, 가구당 종교관계비를 1,599만 가구 수로 곱하면 전 국민이 지출한 종교관계비는 6조 2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것이다.¹⁾ 그런데 2008년에 <바른교회아카데미>에서 주관하여 필자가 실시한 헌금 조사에서는 가구당 1년 평균 헌금액은 344만 8천원이었다.²⁾ 이것은 통계청에서 집계한 가구당 종교관계비 38만 8,300원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많은 액수이다.

이러한 종교 헌금 중에서도 개신교의 헌금액은 다른 종교단체의 헌금액을 압도한다. 교회 헌금액수를 간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교단체 연간 운영자금에 대하여 한 신문 보도 내용에 따르면, 개신교 연간 운영자금은 천주교 3,390억 원, 불교 4,610억 원과는 비교도 안 되는 3조 1,760억 원이었다.³⁾ 두 종교단체에 비해 거의 10배나 많은 액수이다. 하지만 비영리기관의 특성상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한국 교회 성인들의 월 평균 헌금액은 2005년 한미준의 조사 결과 125,600원으로 나타나 1년 헌금액은 1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⁴⁾ 이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 교회의 1년 헌금액을 추산하면, 한국의 개신교인 중 성인을 400만 명으로만 잡아도 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많은 자금이 교회 안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지 않아 심심찮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 집단의 재정 구조는 그 집단의 특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지표 중에 하나이다. 재정은 집단의 설립 목적이나 추구하는 방향에 입각해서 지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서는 단순한 서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의 정신이 배어 있는 도덕 문서가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의 재정을 보았을 때, 교회의 재정이 교회의 본질 사명을 수행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으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재정 사용에 대하여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재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이다. 신학에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고 표현되듯이, 사회학에서 교회는 하나의 ‘도덕 공동체’로 이해된다. 일찍이 사회학자인 뒤르케임은 교회는 성직자들의 집단이 아니라 단일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믿는 이들에 의하여 구성되는 ‘도덕 공동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뜻에서 공동체는 단순히 특정 공간에 개인들이 모여 있다는 뜻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사회성으로 서로 의존하고 토론과 의사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집단이다. 또한 집단의 목적을 위해 개인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가 되어, 선한 것으로 공유되는 ‘실천’을 함께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가리킨다.⁵⁾

이러한 공동체의 관점에서 교회 재정을 접근한다면, 교회 성도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고 토론과 의사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교회 재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성역

1) 「세계일보」, 2007년 8월 16일자.

2) 당시 조사에서는 한 응답자가 1억 원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는데, 다른 응답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치여서 평균을 계산할 때 이 응답자의 응답은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3) 「중앙일보」, 2008년 5월 6일자.

4) 이에 대하여는 한미준-한국갤럽, 「한국교회 미래리포트」(서울: 두란노, 2005), 162쪽을 볼 것.

5) 박영신, “공동체주의 사회과학의 새삼스런 목소리,” 「현상과인식」, 22권 1/2호(1998년 봄/여름), 107쪽.

이라고 얘기되고 일반 사회에서 행해지는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지만, 교회가 성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소수의 사람들이 은밀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회 재정은 최소한 공동체 내부 구성원들에게는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일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도덕 기준에 따라서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종교 단체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영이 될 것이다.

3. 교회의 재정 보고 실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회 재정의 대부분은 교인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으로 이루어지는데, 기독교인들이 하는 헌금은 교회 공동체에 드리지는 것이고 이 헌금은 결국 교회를 위해 쓰이게 된다.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매우 거룩하게 생각하고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헌금을 사용하는 데에서는 그만큼의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매우 현실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목회자를 위시한 소수의 의사결정자가 헌금의 사용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교회 재정의 거의 대부분이 평신도들의 헌금으로 충당되지만 평신도들은 헌금을 드릴 의무만 있을 뿐 헌금의 사용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헌금의 사용에 대하여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가 개방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흔히 교회가 공동체라고 하지만, 특정 권한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집단을 공동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⁶⁾

앞에서 인용한 <바른교회아카데미>의 조사에서는 출석 교회의 재정 보고 방식에 대하여, 일반 교인과 목회자를 합한 전체 응답자의 44.2%가 “모든 교인들에게 재정보고 문서를 배부한다”고 응답하였고, 38.7%는 “제직원들에게만 보고문서를 배부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0.5%는 “영상화면을 통해 보고하고 문서를 배부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4.5%는 “재정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재정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5% 나온 것은 수치 자체는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수치를 5만 8천개 교회에 단순 대입해 보면 2,610개 교회에서 재정 보고를 하지 않는 셈이므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결과로 여겨진다.

이 조사에서는 재정 보고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물어보았는데, 재정 보고에 대한 이해 정도는 재정 보고 방식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모든 교인들에게 재정보고 문서를 배부하는 경우, “충분히 이해한다”는 응답은 51.7%로 절반을 넘으나, 제직원들에게만 보고 문서를 배부하는 경우, “충분히 이해한다”는 응답은 37.0%, 영상화면을 통해 보고하고 문서 배부를 하지 않는 경우, 27.5%로 점점 떨어져서 재정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한다”는 응답이 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상으로 보고를 받을 경우에 재정 보고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가 없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재정 보고는 교회 재정의 계획과 사용에 대해 교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보고를 해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6) 이와 관련하여,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가 주최한 <교회재정 투명성 세미나>에서도 공동체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교회재정 투명성 세미나 자료집」(2007), 13 쪽을 볼 것.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더욱이 비교적 규모가 큰 교회들 중에 재정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결과가 나와 그 심각성을 더하게 한다. 교인수가 많은 교회일수록 재정 규모도 크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대형 교회의 재정 문제에 대해 극히 일부 교회의 문제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문제는 그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고 중소형 교회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막대한 재정을 운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것이다.

재정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효율성 때문이다. 모든 교인들에게 재정 보고를 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또한 이로 인해 이러저러한 ‘말들’이 생기게 되면 교회를 운영하는 데에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성격에 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한다. 교회가 기업과 같은 영리 조직에서 하는 것과 같이 신속성이나 효율성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조직인가 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교회는 공동체이고 공동체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회에서는 소수에 의한 일방 결정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때까지 이해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전래 초기 한국 교회에서는 남녀와 신분의 차별이 없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토론회가 활성화되었으며 자원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전국 곳곳에 세워지면서 공공의 공간으로서 수평의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시민들의 공간이 되었다.⁷⁾ 그리하여 한국 역사에서 교회는 민주적인 조직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현재의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러한 특성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교회 규모 자체가 커지고 대형화됨에 따라 교회 조직 자체가 효율성을 강조하는 관료제화되는 경향을 띄고 있다는 점은 교회의 공동체적 성격과는 상충하는 것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⁸⁾

또한 많은 교회들이 재정보고를 한다고 응답은 하였지만, 재정보고를 얼마나 충실하게 그리고 교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수입, 지출 및 세부 항목을 자의적으로 정하여 실행하는 경우가 많아 각 교회들의 보고 자료를 비교 분석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결산서에는 지출한 항목들을 가능하면 예배·선교 또는 구제 등 재정 지출이 이른바 ‘성경적’이라는 의미를 가지도록 변경하여 성스럽게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와는 다른 경우가 많다.

재정 보고 문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통일된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며,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게 나타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 관리 시에 복식부기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복식부기를 하면 단식부기에 비하여 그 조직의 재무 상태나 수지 관계를 정확히 보고해줄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경영자가 의사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특히 예산을 수립하거나 내부 통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복식 부기의 사용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⁹⁾

이와 관련하여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전신인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는 교회 결산서의 계정과목 체계가 너무나 다양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회계 전문가조차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7) 박영신, “‘공공의 공간’ 형성과 확장: 한말 조선 사회와 그 이후,” 『사회이론』, 2004년 봄/여름호., 21-26쪽.

8) 사회학자인 미헬스는 소수에 의한 지배는 대규모 조직의 관료제 성격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특성이라며 “과두제의 철칙”을 주창하였다. 미헬스의 연구는 독일의 사회 민주당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되었다. 정치적 성공으로 당의 규모가 커지자 사회민주당은 자신들이 비난하던 보수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과벌이 지배하는 당이 된 것을 보고 이러한 연구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Roberto Michels, Political Parties(New York: Free Press, 1967)을 볼 것.

9) 박우용, 『현대 교회와 교회 재정』(서울: 하늘기획, 2000), 243쪽. 얼마 전에는 한국 천주교에서 복식 부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사회의 이목을 끌기도 하였지만, 사실 복식부기 방법은 근대 유럽에서 개신교도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입한 방식이었다.

지적하면서 모두가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재정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¹⁰⁾ 재정의 투명성과 재정 보고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교회 간 재정 비교를 위해서도 통일된 재정원칙을 사용하도록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4. 외부 재정 감사와 재무정보 공개의 필요성

최근 한기총의 ‘돈 선거’가 논란이 되었고 유명 대형 교회의 재정 운영 비리 의혹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만, 이것은 단지 특정 단체나 특정 교회의 문제가 아니다. 웬만한 교단 선거에서도 금권 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재정 운영을 둘러싼 크고 작은 시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해야 할 종교인들이 비종교인 이상으로 금권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신성한 교회 재정을 운영하는 데 비리 의혹이 있다는 것은 비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같은 공동체에 속한 기독교인들조차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외부 재정 감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비영리법인은 감독기관에 재정 및 활동내용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비영리법인에 속하는 교회와 종교 단체는 연간 세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¹¹⁾ 그러나 미국 교계가 자체적으로 교회의 재정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빌리그레이험 목사가 교회 재정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기 위해 창설한 ECFA(Evangelical Council for Financial Accountability)에는 1,500여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 단체에 인증을 받고 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²⁾

회계 감사 제도는 보고된 정보의 타당성, 공정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 고안된 감시 시스템이다. 가장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죄 아래 있으며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재무제표 자료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 이것이 공공 기관들이 회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독립된 회계사에 의해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 교계에서도 재정 감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황호찬 교수는 교인들이 헌금 사용에 대한 투명한 공시로 신뢰를 얻고 정해진 사역에 재정이 투입돼야 하며, 이를 정확하게 자리매김 해줄 장치가 바로 외부 회계 감사라고 주장하였다.¹³⁾

현실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교회들은 교인 수 1,000명 이상의 중대형 교회들이고 1년에 대략 20억 원 이상의 재정이 사용된다. 이러한 규모의 교회는 대략 5% 안팎으로 전체 교회 수를 감안하면 3천 개 정도의 교회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교회들의 경우,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를 받아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교단 총회나 연합 기관들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내부 감사인을 통해 재정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재정 규모가 수 십 억원에 달하는 교회들의 경우 외부 감사를**

10) 이에 대하여는 건강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교회재정 투명성 세미나 자료집」(2007), 4-6장을 볼 것.

11) 종교 단체는 영리를 추구하여 출자나 지분에 따라 이익이 분배되는 단체가 아니라 이웃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인간생활의 질적 향상과 같은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여타 비영리 조직에 준하여 재정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에 대하여는 김정남, 「종교법인의 세무와 교회재정관리」(서울: 영문, 2004), 180쪽을 볼 것.

12) 정영기, “종교단체의 외부감사와 재무정보공개,” 「납세자」, 2011년 여름호(17권), 19쪽.

13) 황호찬, “교회재정 투명성을 위한 제언,” 「공인회계사」, 2001년 6월.

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내 기관들에 대한 회계 감사는 철저히 하면서도 정작 교회 전체 예산에 대한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다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일이 될 것이다. 한쪽에서 권한을 갖고 지시하는 것은 관료제의 특징일 뿐 공동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서로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갖는 것이 공동체이므로 교회 공동체성의 구현을 위해서 회계 감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외부 감사라고 해서 정부 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목회적 안목을 갖추고 교회의 생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교계 관련 회계 기관을 통해서 감사를 받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재정을 규모 있고 합리롭고 투명하게 운영하게 운영하기를 바라는 교회에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교회 안팎으로 재정 운영에 대해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관을 연결해주고, 미국의 ECFA와 같이 **재정 투명성 관련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교계 연합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 기관을 통해서 재정 투명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많은 교회들이 가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재정에 관한 교계의 풍토를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활동 중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교회들은 교인 수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이고 운영하는 재정이 1억 원 미만으로 목회자 사례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이 대략 70~8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작은 교회라고 해서 재정을 주먹구구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나 외부에 공개할 만큼의 재무 정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출석 교인 수 1,000명 이상의 규모가 되는 교회에서는 외부 감사를 통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출석 교인 수 100명에서 1,000명 미만의 교회에서는 내부 감사를 통해서라도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의 재정 자료를 최소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가감 없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 교회와 같은 종교 기관의 경우 특정한 신앙과 신앙 정신의 판단에 따라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재무 정보 전체를 외부에까지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교회 내부에는 반드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헌금을 교회 신도들이 드리기에 때문에 이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공동체가 공유한다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사항이다. 일부 교회, 특히 대형 교회들은 현실적으로 자세히 읽어보지 않는 회계 자료를 교인 모두에게 문서로 배부하는 것은 자원 낭비라는 이유로 문서화된 재정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재무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필요한 경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 일산에 위치하고 있고 출석 교인 6천 명인 ㄱ교회의 경우, 제직회가 있는 주일 오전에 예배 참석자 모두에게 회계 자료를 배부하고 저녁 예배 후에 <열린 제직회>로 모여 제직원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석하여 교회 재정에 대해 의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분기별 회계 자료 중 기본 정보를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놓아서 교인뿐 아니라 외부인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어 모범이 될 만한 사례라고 여겨진다.

또, 경기도 용인에 있는 출석 교인 2천 명의 ㅎ교회는 투명한 재정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교회에 상임으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재정부 감사는 연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부서별로는 언제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특징이 되는 것은 이 교회가 담임목사를 비롯한 유급 사역자들과 직원 사례비도 낱알이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담임목사에게 지급되는 사례금 외의 금액들(준 사례금)은 회계보고서 상에 잘 나타나지 않

는 데 반해, 이 교회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다룰 때 일반 직원들을 포함하여 모든 교직원들의 사례금 명세표를 따로 만들어 지급되는 모든 항목들의 금액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교역자들에게 지급되는 사역비, 관리비 등을 준 사례금으로 분류해서 사례금 명세표에 세밀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표만 보면 월 수령액이 얼마이고, 연 총액이 얼마인가를 누구나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교회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마다 정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신교계에서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교회 정관 갖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실제로 교회가 정관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교회에서 정관을 마련하자면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 운영 방침에 대해 토론하여 의견을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주적인 교회 운영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교회마다 자신들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정의하고 그에 따른 상세한 교회 운영 방안과 규칙과 절차를 정립해 나간다면 교회 스스로 공동체성에 걸맞은 특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일부 목회자들은 교회 재정을 지나치게 투명하게 운영하면 성스러운 신비감이 사라져서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성스러움은 헌금이 갖는 이미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성경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는 것이다. 또한 헌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사회봉사비 등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면 교인들은 더 많은 헌금을 내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금 내기를 꺼려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세금이 공적으로 엄격하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면서도, 동시에 비영리단체에 기부하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그 기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중적인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교인들 역시 교회의 헌금 사용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면 헌금 내기를 꺼려할 수 있다. 반대로,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성경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 때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아낌없이 자신의 재물을 공동체에 바치게 되는 것이다. 재정 집행의 대행자인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교회 재정에 어떠한 이기심도 개입하지 않고 공동체성에 따라 집행될 때 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공신력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 나가는 말

교회는 스스로 공동체임을 표방하지만 그 공동체의 성격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의 권위자가 권한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권위주의 조직일 뿐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재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교회 재정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모든 물질세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교회에 바친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성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는 재정이 세속의 사람들도 하지 않을 법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참담하게 느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정 사용의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목회자와 교회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영리 단

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교회의 활동이 공공성을 띄고 있으며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자신들을 위한 공동체로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명제에 동의한다면 교회 재정의 얼마간은 우리의 이웃을 위해, 다시 말하면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독교인들이 형편과 관계없이 자신의 신앙고백으로 십일조 헌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교회 규모나 형편을 떠나서 재정의 일정 부분을 우리 사회를 위해 사용하도록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이제 교회 재정을 단순히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이해하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교회 지도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공공의 관점에서 토론과 실천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 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교회는 보다 건강하고 참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나가게 될 것이다.

투명성을 강조한 교회 사례



윤병환 사무장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재정보고 사례] -100주년기념교회-

1. 재정집행 및 보고 원칙(근거조항)

- 재정집행원칙(정관 제7조 2항)
: 헌금의 50%는 교회를 위해, 나머지 50%는 교회 밖을 위해 사용
(담임목회자 소신 차원을 넘어 교회창립정신으로 정관에 규정한 것임)
- 재정보고 범위 및 방법(정관 제7조 3항)
: 매월 첫째주일에 그 전월의 재정입출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교인에게/ 1원 단위까지/ 서면으로 보고
(서면보고 외에 교회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란에 상시 게재하되 누구나 열람 가능)

2. 재정공개 이유와 목적

- **공개 기본취지** :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하나님과 교인들에게 보고 드린다는 마음으로 공개
- 협의로는 모든 교인들이 교회 살림살이를 충분히 이해하여 헌금사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비분질적인 사항들로 인해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추구해 나가야 할 본연의 길(道), 즉 각기 처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만 담대히 드러내며 살아가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공개대상** : 모든 교인들 심지어 외부의 불특정다수에게까지 공개함으로써 제한된 소수 내부 감사자만에 의한 감사의 한계성을 극복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재정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절차

(1) 수입 : 현금무기명주의

- 매주일 현금(십일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기타)을 집계하여 다음주일 주보 후면에 설교테잎 판매대금, 상품권 및 외화를 포함한 상세내역을 1차 공개한 후 다음달 초 월 합계분을 통장잔액과 함께 월 단위 결산보고서에 2차 공개.
(수입은 통상 주 1회 발생하는데 현재 매주일 현금과 설교테잎 판매대금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그 내역은 매우 단순하며 현금은 무기명을 원칙으로 하되 연말정산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토록 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

(2) 지출 : 완전공개주의

- **결재과정** : 각 봉사팀장(현재 65팀)이 지출결의서를 작성, 첫번째 결재란에 사인 후 사무국에 제출하면 사무장이 지출내용을 확인한 후 두번째 결재란에 사인하여 마지막으로 사무장 입회 하에 재정팀장이 최종 결재란에 사인하면 자금집행 실시.
(참고로 결재라인상에서 교역자는 일체 배제되며 다만 상호관련업무의 이해를 위해 담당교역자 및 선임교역자의 확인단계를 거침)
- **지출기준** : 교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된 [재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단일거래 기준 200만원 이하의 지출은 자체 판단하여 팀장 재량하에 집행하고 200만원 초과 1,000만원 미만의 경우 재정팀장과 사전협의 후 집행해야 하며 (단, 상임위에 사전보고 후 승인을 얻은 경우 제외)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의 경우 3곳 이상의 비교견적을 통해 집행하고 (상임위에 사전보고 후 승인시 제외)
2천만원 이상 거래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보관하여야 함
[참고로 100주년기념교회는 예산을 세우지 않음]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가능한 당 교회 교인과는 금전적 상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되 부득이 한 경우 거래상대방은 공정한 가격임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함
- **지출증빙** : 일반사업자 이상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간이영수증은 가급적 삼가며 가능한 보완증빙을 구비하여 첨부하여야 함 (모든 거래는 부가세 납부, 모든 교직원은 소득세 납부 원칙)
- **통장/인감관리** : 안전한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과 도장은 각기 다른 사람이 별도 보관 관리하며 자금인출 필요시(보통 주1회) 같이 만나 전표에 날인 받아 거래은행에 가서 송금 처리함(단,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매주 총액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 허용)
- **자금운용원칙** : 수익성 보다 안전성 우선의 원칙에 입각, 현재 정기예금 외에 다른

운용 수단 배제

- **회계감사 및 보고** : 자금집행 후 지출증빙이 첨부된 지출결의서를 월 2~3회에 걸쳐 감사가 통장거래내역과 일일이 비교, 대조감사를 실시한 후 월 초 결산보고서가 완성되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함께 상임위에 상정, 상임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후(정관 제9조 2항) 결산보고서 말미에 감사의견을 표명, 사인하면 해당 결산보고서를 인쇄하여 주일에 각 교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배포함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게재.
- 아울러 분기별 전년분기 대비 분기보고서와 매년 말 연간보고서 및 상품권 수입/지출내역서(연말)를 작성하여 세부 사용내역을 공개함.

4. 공개의 장단점

(1) 장점

모든 정보를, 모든 교인에게, 모든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담임목회자 또는 재정담당자의 독단적 자금집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교인들의 현금사용에 대한 이해 및 신뢰도를 높여 이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근절.

(2) 단점

- 너무 세부적인 정보까지 제공하다 보니 사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음.
단, 불우이웃돕기, 특정국 선교 등 비밀보장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명 미기재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의 피해가 예견되는 경우에 국한.
- 현금 사용내역에 대한 지나친 관심 유발 초래.

5. 맺음말

결산보고서의 완전공개를 통한 재정의 투명성이 가져다 주는 장점은 단점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바 적극 공개하여 비밀스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

동시에 담임목회자의 재정공개에 대한 적극적 의지, 회계책임자의 선관주의 의무 이행 및 원천 회계자료에 대한 최대한 가공 자제 등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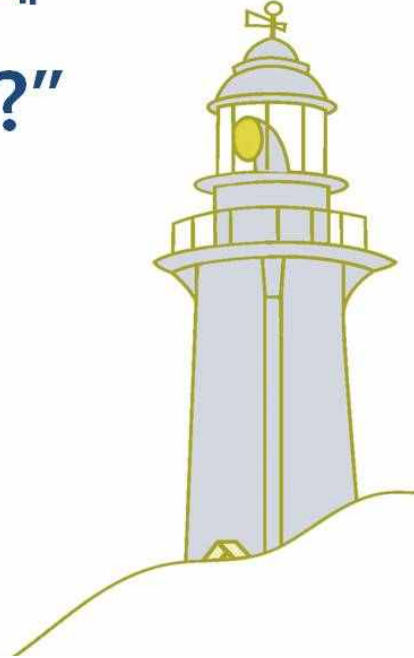
책무성을 강조한 단체 사례

조제호 사무처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책무성을 강조한 단체사례 “이래도 못 믿나?”

2011. 11. 10
2011 교회재정세미나 “재정보고의 정석”
조제호 사무처장(기윤실)



비영리단체와 교회의 재정 관리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재정 공개 관점에 대한 큰 차이를 느꼈다. 비영리단체는 재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후원자들이 맡긴 후원금의 사용 내역을 알려주고 그럼으로써 후원자들이 안심하고 후원할 수 있는 구조를 선호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의 홈페이지마다 재정 내역을 공개하는 추세다. 이들은 후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재정 관리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최호윤 “재정 공개, 왜 두려워하는가?”(뉴스앤조이 2007.7.12)

선교 단체가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재정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선교 단체가 수동적으로 "왜 우리를 믿지 못하느냐?"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의 투명성이 이렇다고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 손창남 "선교단체의 재정적 투명성을 위한 노력"(CGN 칼럼 2005.9.1)

 **보고 싶은 재정 보고** 

1. **재정운영원칙이 있다.**
 - 우리는 이런 원칙으로 재정을 운영.
2.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 메인페이지에서 바로 클릭이 가능.
3.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신속한 업데이트 누구나 열람.
4.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 비교 설명, 데이터 요약 설명, 궁금한 점 미리 설명, 연간 재정추이 보고, 계정 도움말
5. **지속적인 개선의지가 있다**

투명성을 강조한 단체사례



13

1. 재정운영 원칙이 있다

살림과 후원금의 투명한 운영을 이렇게 하립니다. [살림공개]유리알살림.

송인수 조회 292 추천 0 2008.05.23. 13:59

<http://cafe.daum.net/no-worry/29GB/4> **복합**

※살림, 그리고 보내주신 후원금은...

- △이 운동은 재정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1원도 받지 않고 순수 (후원) 회비로 운영됩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될 때, 정부를 상대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될 뿐 아니라, 회원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의 후원금으로 건강한 재정을 운영하는 시민단체 본연의 자세를 잃기 쉽습니다.
- △후원 내역은 매달 사이트를 통해서 일반에 공개됩니다. 언제든지 들어와서 누구든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년 1회 회계 법무 법인을 통해 재정 감사를 받으며, 그 결과를 회원 및 일반에 공개합니다. 단체의 활동에 대한 신뢰는 '재정의 투명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법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재정 감사를 받음으로 회원과 후원자들 그리고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단체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14



1. 재정운영 원칙이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재정 투명화 원칙

CHRISTIAN ETHICS MOVEMENT OF KOREA

기신은 재정 투명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1. 모든 후원금은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02. 매달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소식지,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03. 연 1회 이상 외부 공인회계 감사를 받고, 이를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04. 정부나 기업으로부터는 단체운영이나 인건비 명목의 후원은 받지 않습니다. 단, 단체의 사명 실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업비 명목의 후원은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05.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허위로 하거나, 차명으로 하지 않습니다.

15



1. 재정운영 원칙이 있다



재정보고서



벌떡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청년 시절 교회에서 예결산 공동의회에서 “왜 우리 교회는 구제와 선교, 교육 항목에 대한 지출이 이렇게 적습니까?”라는 항의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깨어있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교의 재정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학교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같은 마음과 자세로 좋은교사운동의 지출 현황도 자세히 살펴 주십시오. ‘좋은교사운동은 잘 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을 버리십시오. 좋은교사운동의 사무국도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년 우리나라에서 간간하기로 소문난 회계법인으로부터 유료 재정 감사를 받고 지적 사항을 수정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회원들의 뒀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좋은교사운동 사무국은 많은 벌떡 교사를 필요로 합니다. 저희로서는 피곤할 수 있지만 이러한 관심과 확인, 충고와 조언이 우리 속의 죄와 안일로부터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가리라 믿습니다.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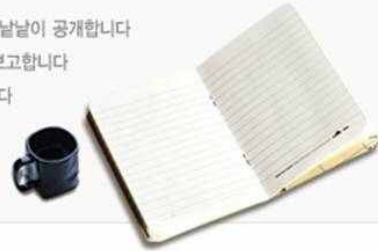


1. 재정운영 원칙이 있다



유리알처럼 투명한 희망제작소 투명재정 5대 원칙

- 공개** 희망제작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홈페이지와 연례보고서를 통해 낱알이 공개합니다
- 신속** 희망제작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정산이 끝나는 즉시 신속하게 보고합니다
- 친절**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표현합니다
- 감사** 내부 자체 감사 외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감사를 받습니다
- 준법** 법률에 근거한 회계, 그 이상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합니다



17



1. 재정운영 원칙이 있다



공정성

시민과 사회가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합니다.

투명성

재정,사업,운영의 모든 내용을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전문성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사들이 참여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합니다.

종합성

우리사회와 기부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한 분야만이 아닌 다양한 영역을 지원합니다.

대중성

특정인사,특정단체,특정기업이 아닌 지역사회성원 모두가 주인되는 재단입니다.

18



3.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신속한 업데이트, 누구나 열람가능>

번호	<input type="checkbox"/>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
231	<input type="checkbox"/>	2011년 9월 수지결산서(울간지)	좋은교사	10/25	79
230	<input type="checkbox"/>	2011년 9월 수지결산서(법인)	좋은교사	10/17	96
229	<input type="checkbox"/>	2011년 8월 수지결산서(울간지)	좋은교사	09/15	209
228	<input type="checkbox"/>	2011년 8월 수지결산서(법인경상)	좋은교사	09/07	202
227	<input type="checkbox"/>	2011년 7월 수지결산서(울간지)	좋은교사	08/23	217
226	<input type="checkbox"/>	2011년 7월 수지결산서(법인경상)	좋은교사	08/19	245
225	<input type="checkbox"/>	2011년 6월 수지결산서(울간지)	좋은교사	07/14	370
224	<input type="checkbox"/>	2011년 6월 수지결산서(법인경상)	좋은교사	07/13	318
223	<input type="checkbox"/>	2011년 5월 수지결산서(법인경상)	좋은교사	06/15	439
222	<input type="checkbox"/>	2011년 5월 수지결산서(울간지)	좋은교사	06/15	400
221	<input type="checkbox"/>	2011년 4월 수지결산서(울간지)	좋은교사	05/19	467
220	<input type="checkbox"/>	2011년 4월 수지결산서(법인경상)	좋은교사	05/16	460
219	<input type="checkbox"/>	2010년 정기감사보고서	좋은교사	04/22	535
218	<input type="checkbox"/>	2011년 3월 수지결산서(울간지)	좋은교사	04/13	496
217	<input type="checkbox"/>	2011년 2월 수지결산서(울간지)	좋은교사	04/13	472

home [1] [2] [3] [4] [5] [6] [7] [8] [9] [10] [▶] - [16] next write



3.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신속한 업데이트, 누구나 열람가능>

기/육/교/윤/리/실/천/운/동
기윤실 살림살이 | CHRISTIAN ETHICS MOVEMENT OF KOREA

'기윤실 살림살이'는 회원님들께서 정성껏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알려드리는 공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기윤실 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고, 앞으로의 2020 비전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회원님들의 정성때문입니다.

※ 문의 : 박은애 간사 (070-7019-3756, cemk@hanmail.net)

2010년도 기윤실 회계감사보고서

게시물 57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최근
57	2011년 9월 수지결산서 <input type="checkbox"/>	기윤실	10-07	103	10-07
56	2011년 8월 수지결산서 <input type="checkbox"/>	기윤실	09-09	121	09-09
55	2011년 7월 수지결산서 <input type="checkbox"/>	기윤실	08-12	122	08-12
54	2011년 6월 수지결산서 <input type="checkbox"/>	기윤실	07-22	173	07-22
53	2011년 5월 수지결산서 <input type="checkbox"/>	기윤실	06-08	177	06-08
52	2011년 4월 수지결산서 <input type="checkbox"/>	기윤실	05-11	355	05-11
51	2011년 3월 수지결산서 <input type="checkbox"/>	기윤실	05-11	179	05-11
50	2011년 2월 수지결산서 <input type="checkbox"/>	기윤실	03-16	279	03-16
49	2011년 1월 수지결산서 <input type="checkbox"/>	기윤실	02-14	355	02-14



4.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2. 사무관리비	2,608,220	
(1) 통신비	185,680	일반 070전화 요금 (9월) 인터넷 요금 (9월) 와이브로 요금 (9월)
(2) 교통비	80,000	철도 비즈니스 카드 6개월권
(3) 소모품비	57,100	사무용품 구입
(4) 지급수수료	178,240	CMS 수수료 이체 및 출금 수수료 금융결제원 수수료
(5) 수도광열비	188,270	전기 요금 (9월) 관리비 (9월)
(6) 지급임차료	1,490,000	임대료 (9월) 복사기 사용료 (9월)
(7) 발송비	112,040	퀵비 (소식지) 우편료 및 택배비 (자살예방 가이드북 발송) 우편료 및 퀵비 (자료 발송) 우편료 및 택배비 (이사회자료 발송)
(8) 복리후생비	112,490	간식비 (2건) 아근 식비 (10건)
(9) 활동비	83,400	식비 (포아동 회년실전 주일 연합예배 참가) 식비 (연대회의)
(10) 유지보수비	121,000	나눔과점 이동료
3. 사업비	9,088,339	
가. 사업행사비	6,226,039	
(1) 회의비	289,550	* 한기총해체 촉구 기독교학생 선언 * 교회자정 세미나 * 깨끗한 총회 캠페인 * 전율세대단 실천운동 - 하반기 사업 논의
(2) 홍보비	784,400	* 깨끗한 총회 캠페인 - 배너 광고, 판촉물 구입, 현수막 제작 및 발송
(3) 인쇄비	1,817,750	* 한기총해체 촉구 기독교학생 선언 피켓 인쇄 * 한국교회 저작권 포함 자료집 제작 * 자살예방 가이드북 제작

(1)
결산 내역을
비교로 설명한다



4.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2011 9월 당기순이익	
1월 당기순이익	18,627,146
2월 당기순이익	101,219,219
3월 당기순이익	40,301,034
4월 당기순이익	-107,182,479
5월 당기순이익	-60,768,043
6월 당기순이익	101,621,444
7월 당기순이익	-103,558,114
8월 당기순이익	94,108,035
9월 당기순이익	-7,382,112
1~9월 누적 당기순이익	77,006,130

2011년 9월 수입 내역	
항목	금액
기부금	146,000
연구용역	48,000
교육참가수익	68,000
자료집판매금	230,100
광고수입	0
인세수입	0
수입수수료	508,092
임대료	590,909
기타수입	800,000
이자수익	81,483
집이익	6,070
수익 합	265,163,420

(2)
데이터를
요약해서 설명한다

2011년 9월 지출 내역	
항목	금액
직원급여	96,705,800
인적용역	0
회계급여	75,907,398
복리후생비	10,511,790
복리후생비(편)	2,774,450
복리(회식)	0
복리(식대)	691,190
통신비	1,564,649
수도광열비	1,080,347

4.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2010년 총 수입 내역		2009년 지출 내역	
항목	금액	항목	금액
기부금	1,809,047,997	직원급여	956,200,000
연구용역	868,027,579	인적용역	48,300,000
교육참가수익	672,883,866	회식급여	79,100,000
자료집판매금	41,154,740	복리후생비	93,215,779
광고수입	29,636,356	복리후생비(편)	25,041,490
인세수입	41,627,954	복리(회식)	842,910
임대료	6,499,999	복리(식대)	14,457,563
기타수입	989,469	통신비	30,949,472
이자수익	16,721,775	감가상각비	70,579,550
회환차익	0	수도광열비	9,408,225
잡이익	118,961	세금과공과금	61,936,166
수익 합	3,486,708,696	지급입차료	100,414,399
		수선비	3,710,143
		보험료	14,023,897
		운반비	4,684,044
		도서인쇄비	193,470,811
		회의비	18,207,803
		사무용품비	15,386,978
		소모품비	7,663,116
		지급수수료	31,387,192
		무형고정자산상각비	24,472,000
		부담부중여확정비용(목적)	420,000,000
		건물관리비	42,360,000
		경조사비	5,000,000
		기타인건비	24,874,630

(2) 데이터를 요약해서 설명한다

2010년 당기순이익	
월	당기순이익
1월	298,615,376
2월	18,184,931
3월	-49,382
4월	-67,110,033
5월	-37,035,334
6월	11,614,203

4.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안녕하세요. ■■■ 간사입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듯 매섭게 쏟아지는 폭우와 잦은 비로 걱정이 많으시죠. 혹시 피해는 입지 않으셨나 걱정이 되네요. 폭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빨리 복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긴 했지만 감사하게도 사무실 쪽은 피해가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더불어 휴가 기간이 겹쳐서 맘 편히 휴가를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차가 막히지 않아 저의 출근시간은 엄청 빨라졌습니다. 이번 여름을 좋은 일들로 잘 넘기시길 기대합니다. 재정보고 드립니다.

(3) 궁금한 점을 미리 설명한다

■ 2011년 7월 재정보고

7월 재정을 결산해보니, 전체적으로 수입은 40,770,140원에 지출은 45,818,035원으로 지출이 500여만원 더 많았던 달이었습니다. 이것은 아깝다 학원비 소책자를 재정비하여 추가제작과 발송비용 790만원과 동대학교 준비 업서제작 발송비 570만원 지출로 인한 지출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월 이월금 9,915,753원이 있어서 전체 재정은 아직 500만원 가량의 수입이 누적분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누적분은 앞으로 있을 행사(동대학교, 영어소책자 제작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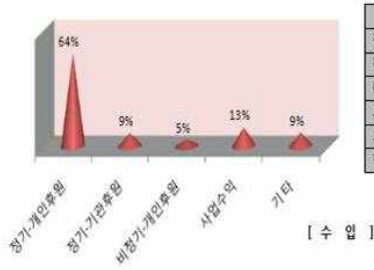
■ 2011년 7월 수지결산서 보기(클릭)

■ 2011년 7월 후원자 명부 및 신규 후원자 보기(클릭)

4.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 수입 특이사항



항목	금액	비율
정기·개인후원	26,037,000	64%
정기·기관후원	3,730,000	9%
비정기·개인후원	1,880,500	5%
사업수익	5,293,000	13%
기타	3,829,640	9%
합계	40,770,140	100%

(3)
궁금한 점을
미리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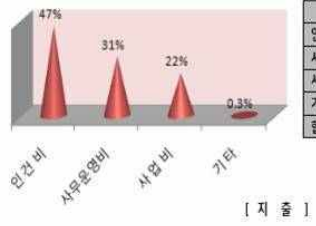
- ① 개인-정기후원금 약 2,600만원 : 변함없는 선생님들의 지지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7월에 16명의 회원이 늘었습니다.
- ② 강연비 후원 - 약 110만원 : 100인 강사클럽 아시즈. 지역에서 열리는 강의를 100인 강사님들이 잘 섬겨주시고 계셔서 지역마다 강의를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아깝다 학원비 소책자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서 기쁩니다. 100인 강사님들의 열정과 우리들의 관심을 통해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소식과 뜻이 많이 많이 전파되길 소망합니다.
- ③ 동대지기학교 참가비 - 약 480만원 :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동대지기학교가 드디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고 계십니다. 제6기 동대지기학교 등록인원 목표가 몇 명인지 아세요?

27

4.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 지출 특이사항



항목	금액	비율
인건비	21,476,077	47%
사무운영비	14,140,412	31%
사업비	10,076,546	22%
기타	125,000	0.3%
합계	45,818,035	100%

(3)
궁금한 점을
미리 설명한다

- ① 아깝다 학원비 소책자 인쇄비 - 약730만원 : 이번에 지역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모임 연락처를 추가로 삽입하여 주가 제작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모두 볼 때까지 저희의 소책자 사업은 쪽~~~~계속됩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 ② 강사비 270만원 : 대학교육체제 개편 12차 연속토론회와 미니대학에 오셔서 열띤 강의를 해 주시는 교수님들과 발제자, 논찬자들의 수고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작은 성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 ③ 동대지기학교 준비 약 700만원 : 동대지기학교를 위해 먼저 동대장님들이 모여서 MT를 가졌

28



4.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 개인후원자 변화추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정기후원자	852명(88%)	774명(84%)	729명(91%)	749명(88%)
비정기후원자	111명(12%)	148명(16%)	73명(9%)	98명(12%)
합	965명	922명	802명	847명

✓ 정기후원은 후원이 예측되는 CMS와 자동이체이며, 비정기후원은 계좌이체와 지로입니다.

(4)
재정의 연간추이를 보여준다

• 후원 교회 기관 변화추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교회	70개(88%)	63개(90%)	63개(86%)	58개(81%)
기관	10개(12%)	7개(10%)	10개(14%)	13개(19%)
합	80개	70개	73개	71개

• 요약 운영성과표

단위: 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입	406,984,196	537,383,024	384,769,102	475,539,094	404,163,885
지출	433,220,867	428,262,088	376,341,345	438,271,830	443,370,383
순자산의 증감	-26,236,671	109,120,936	8,427,757	37,267,274	-39,206,498

• 요약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단위: 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자산총계	96,389,700	175,909,901	186,799,252	207,621,963	165,624,796
유동자산	20,867,732	89,680,013	61,218,903	91,861,353	106,478,103
고정자산	75,521,968	86,229,888	125,580,349	115,760,610	59,146,693
부채총계	53,393,239	23,792,504	26,254,098	9,735,035	6,944,366
유동부채	31,761,112	1,095,041	3,210,497	3,189,859	5,168,714
고정부채	21,632,127	22,697,463	23,043,601	6,545,176	1,775,652
순자산총계	42,996,461	152,117,397	160,545,154	197,886,928	158,680,430
기본금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적립금	128,138,847	-	-	-	-
잉여금	-130,142,386	107,117,397	115,545,154	152,812,418	113,680,430

29



4.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수입 항목 도움말

항목	설명
기부금	희망제작소를 후원하는 개인, 법인 등의 기부금으로 사육마린을 위한 주춧돌후원금,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사업후원금, 희망제작소운영을 위한 운영후원금 등
연구 용역	공공문화사업 용역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고 받는 수입
교육 참가 수익	지역의 리더들을 양성하거나 행복한 노년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고 받는 수입
자료집 판매금	뿌리찾기, 조계집, 우리시대 희망찾기 등 희망제작소 출판도서 판매수입
광고 수입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배너광고나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수입
인세 수입	각종 출판물 발행에 따라 출판사로 부터 받는 인세
임대료	기부받은 임평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수입
이자 수입	여유자금을 은행 등에 예치하여 받는 이자
기타 수입	발생빈도가 적고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수입을 처리하는 계정(예 외환차익 등)

(5)
계정을 설명하는 도움말

지출 항목 도움말

항목	설명
직원 급여	희망제작소 연구원에게 지불하는 급여(기본급, 제수당)
인적 용역	일시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희망제작소에서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는 연구원에게 지불하는 임금
퇴직 급여	퇴직하는 연구원이나 퇴직할 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복리 후생비	희망제작소가 연구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식대, 아근식대, 직장체육비, 회관대, 건강보험료 등
통신비	전신, 전화 사용과 관련한 비용

30

5. 지속적인 개선의지가 있다

건의서함에 대한 반영 결과

(작성: 사교육걱정없는세상)

1. 정관 규정 보완

가) 준회원규정 보완

지적: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회원은 현재 총회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정회원과, 재정적인 지원만 하는 후원회원으로 크게 구분하며, 정회원이 되기 전 3개월 동안은 준회원의 자격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준회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음.

반영: 제4회 정기총회를 통해, 정관의 회원 구분에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며 준회원에 대한 구분을 명시화한 내용으로 정관을 보완하는 내용을 승인 받음.

나) 정회원 회비 미납시 권리 유보

지적: 정회원이 회비를 미납하는 경우 정회원의 권리를 유보하는 구체적인 방법 명시 필요함.

반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1년 2월 현재 1300명을 넘는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정회원은 430여명에 이른다. 회원 수의 증가로 회비가 미납되는 회원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총회 때 의결권을 가지는 정회원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4회 정기총회를 통해, 정관 제5조 제3항에 “정회원으로서는 6개월 이상 회비 미납이 지속될 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항목을 추가하는 수정사항을 승인 받음.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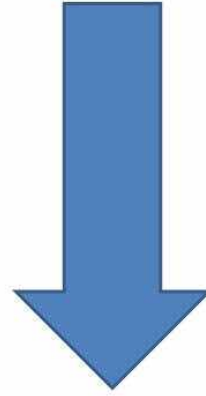
왜 결산내역을 일간지에 공개할 수 없나?

- 1999년 가림회계법인(대표이사 최상훈)
- ★ 2000년 3월 22일 수요일 국민일보 결산광고

34



우리 못 믿냐?



이래도 못 믿냐?

모범예시

300명 규모 교회의 3년간 실제 자료를 기반으로

최호운 회계사

나눔과섬, 제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재정보고의 정석”

재정보고의 사례

공인회계사 최 호 윤

2011. 11. 1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가. 재정보고의 원리

1. 보고의 목적

가. 일반적 재정보고의 목적

과거 특정 기간동안의 **활동(경영)성과** 및 특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미래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 영 리 조 직: 목적사업, 배당, 추가 지원(투자, 대여), 과세
- 비영리조직: 목적사업, 후원, 활동 참여, 지원

나. 교회 재정보고의 목적

- 교회 공동체 구성원간 공유
- 대리인으로서의 책무성에 대한 판단과 목회적 의사결정 기초정보
-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정보제공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2. 보고받는 주체

가. **머리**로서의 그리스도

나.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회중

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할 공의 **생태계**로서의 공중

3. 보고의 원칙

가. 사실과의 **합치성** => Figure

나. 정보의 **투명성** => Transparency

다. 회중/이해관계자 중심의 **가독성**
=> Ratio, Trend, Correlation

라. 상시 **접근 가능성** => Accessibility

가. 분류 기준과 집계 수치

나. Ratio 정보 속성

다. 추이(Trend) 정보의 성격

라. 상관관계(Correlation)

마. 서술적 보충정보(Narrative Description)

1. 수입		
항목	누계	수입률
전기이월	66,705,911	13.6%
십일조	388,467,950	79.3%
감사헌금	49,692,600	10.1%
주일헌금	26,719,850	5.5%
선교헌금	2,550,000	0.5%
절기헌금	15,252,000	3.1%
특별헌금	0	0.0%
기타헌금	0	0.0%
기타수입	0	0.0%
합 계	490,072,986	100%

2. 지출			
항목	2010년 지출계획	집행	집행률
예배비	9,700,000	7,717,420	79.6%
목회비	169,482,500	170,720,000	100.7%
전도비	52,500,000	49,900,160	95.0%
교육비	42,100,000	40,756,630	96.8%
나눔봉사비	97,350,000	85,667,400	88.0%
친교비	23,850,000	25,056,130	105.1%
문화비	3,000,000	1,707,000	56.9%
관재비	115,000,000	92,948,364	80.8%
예비비	10,000,000	3,734,000	37.3%
합 계	522,982,500	478,207,104	91.4
차기이월		11,865,882	

나. 보고사례

1. 전형적 (지출 세부 ①)

지출항목별 재정보고(2010년 1-12월)

항	목	예산	실적	집행율
예 배 비	예배준비비	1,000,000	760,920	76.1
	주보인쇄비	4,000,000	3,721,500	93.0
	종보기도팀	1,500,000	370,000	24.7
	찬양부운영비	3,000,000	2,865,000	191.0
	주보팀활동비	200,000	0	0.0
	계	9,700,000	7,717,420	79.6
목 회 비	도서비	4,800,000	4,800,000	100.0
	목회활동비	9,600,000	9,600,000	100.0
	사례비	144,982,500	146,220,000	100.9
	퇴직적립금	9,200,000	9,200,000	100.0
	휴가비	900,000	900,000	100.0
	계	169,482,500	170,720,000	100.7
전 도 비	국내선교비	10,300,000	9,900,000	96.1
	국외선교비	30,000,000	29,181,400	97.3
	문서선교비	1,000,000	0	0.0
	병원선교비	1,200,000	1,200,000	100.0
	새생명행사비	4,000,000	3,355,860	83.9
	수요전도비	4,500,000	4,500,000	100.0
	심방비	1,500,000	1,762,900	117.5
	계	52,500,000	49,900,160	95.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6



나. 보고사례

1. 전형적 (지출 세부 ②)

항	목	2010예산	합계	집행율
	1청년부	4,600,000	3,360,000	73.0
	2청년부	1,000,000	1,600,000	160.0
교	교사장년교육지원	8,000,000	7,208,840	90.1
	새가족부	3,500,000	3,500,000	100.0
목	어린이성가대	1,000,000	750,000	75.0
	영아부	3,500,000	3,300,000	94.3
	유년부	3,500,000	3,300,000	94.3
	유치부	3,500,000	3,018,000	86.2
	전교인수련회	5,000,000	4,986,790	99.7
비	중고등부	5,000,000	6,083,000	121.7
	초등부	3,500,000	3,650,000	0.0
	계	42,100,000	40,756,630	96.8
나 눔 봉 사 비	나눔비	24,000,000	15,900,000	66.3
	사회봉사비	5,000,000	5,333,400	106.7
	교역자장학비	18,000,000	20,814,000	115.6
	민들레교실	16,750,000	11,100,000	66.3
사 비	베베하우스	3,600,000	3,920,000	108.9
	쉼터	12,000,000	12,000,000	100.0
	일반장학비	18,000,000	16,600,000	92.2
	계	97,350,000	85,667,400	88.0
친 교	경조비	2,000,000	1,980,000	99.0
	애찬비	18,000,000	18,200,000	101.1
비	행사비	3,850,000	4,876,130	126.7
	계	23,850,000	25,056,130	105.1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7



나. 보고사례

1. 전형적 (지출 세부 ③)

항	목	2010예산	합계	집행율
문화비	공연문화비	1,000,000	300,000	30.0
	도서운영비	1,000,000	525,000	52.5
	행사홍보비	0	0	0.0
	환경미화비	1,000,000	882,000	88.2
	계	3,000,000	1,707,000	56.9
관	건물유지보수비	14,000,000	8,178,400	58.4
	공간마련적금	36,000,000	12,000,000	33.3
	공공요금	15,000,000	19,453,351	129.7
	복리후생비	8,000,000	12,418,693	155.2
재	비품구입수리비	12,000,000	8,981,970	74.8
	사무비	4,000,000	3,513,190	87.8
	상회비	16,000,000	14,655,000	91.6
	차량구입비	0	0	0.0
비	차량운영비	10,000,000	13,747,760	137.5
	계	115,000,000	92,948,364	80.8
	예비비	43,000,000	3,734,000	8.7
	총 합계	555,982,500	478,207,104	86.0

나. 보고사례

1. 전형적 (보고 결과)

- 재정보고로 파악한 정보는?
-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재정보고 사례

1. 비율(Ratio)과 추이(Trend) – 수입

항목	2009년		2010년		~2011/10	
십일조	358,116,490	77.9%	388,467,950	80.5%	358,648,200	81.7%
감사헌금	57,882,000	12.6%	49,692,600	10.3%	44,446,000	10.1%
주일헌금	24,271,820	5.3%	26,719,850	5.5%	24,104,690	5.5%
선교헌금	2,080,000	0.5%	2,550,000	0.5%	3,030,000	0.7%
절기헌금	12,359,000	2.7%	15,252,000	3.2%	5,894,000	1.3%
특별헌금	5,068,000	1.1%	0	0.0%	3,101,000	0.7%
기타헌금	0	0.0%	0	0.0%	0	0.0%
기타수입	30,000	0.0%	0	0.0%	0	0.0%
금기합계	459,807,310	100.0%	482,682,400	100.0%	439,223,890	100.0%
			4.97%		9.20%	(년단위환산기준)
전기이월	400,051		7,390,586		11,865,882	
총 합 계	460,207,361		490,072,986		451,089,772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10



다. 재정보고 사례

1. 비율(Ratio)과 추이(Trend) – 수입

항목	2009년		2010년		~2011/10	
십일조	358,116,490	77.9%	388,467,950	80.5%	358,648,200	81.7%
감사헌금	57,882,000	12.6%	49,692,600	10.3%	44,446,000	10.1%
주일헌금	24,271,820	5.3%	26,719,850	5.5%	24,104,690	5.5%
선교헌금	2,080,000	0.5%	2,550,000	0.5%	3,030,000	0.7%
절기헌금	12,359,000	2.7%	15,252,000	3.2%	5,894,000	1.3%
특별헌금	5,068,000	1.1%	0	0.0%	3,101,000	0.7%
기타헌금	0	0.0%	0	0.0%	0	0.0%
기타수입	30,000	0.0%	0	0.0%	0	0.0%
금기합계	459,807,310	100.0%	482,682,400	100.0%	439,223,890	100.0%
			4.97%		9.20%	(년단위환산기준)
전기이월	400,051		7,390,586		11,865,882	
총 합 계	460,207,361		490,072,986		451,089,772	

● **파악한 정보?**

- 매년 5%, 9% 성장한다
- 수입 금액의 대부분은 십일조로 구성된다
=> 십일조 이외의 선교, 구제 등 지정헌금은 거의 없다
- 감사헌금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 **질문들?**

- 수입 금액 증가는 교인수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 개인별 헌금액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
- 감사헌금의 감소는 교인 감소로 인한 것인가? 감사의 마음/제목들이 줄어든 것인가?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11



2. 상관관계(Correlation) – 수입

	2009년	2010년	2011년
등록교인당 평균헌금	1,074,316	1,065,524	1,029,431
가구당 평균 십일조	1,689,229	1,703,807	1,642,664
등록 교인당 감사헌금	135,238	109,697	104,170
세례교인당 선교헌금	6,209	6,892	8,825
등록교인	428	453	512
세례교인	335	370	412
가구수	212	228	262

● 설명들?

- 2011년 초신자증가로 등록교인은 증가하였지만 등록교인당 평균헌금액, 감사헌금, 십일조 금액이 감소
- 선교헌금은 작정한 세례교인이 주축을 이루어 상대적으로 증가

3. 비율(Ratio)과 추이(Trend) – 지출

항목	2009년		2010년		~2011/10	
예배비	7,533,320	1.7%	7,717,420	1.6%	3,941,780	0.9%
목회비	156,391,400	34.4%	170,720,000	35.7%	153,285,000	35.4%
교육비	32,519,770	7.2%	40,756,630	8.5%	31,493,372	7.3%
친교비	22,985,380	5.1%	25,056,130	5.2%	20,886,710	4.8%
문화비	2,183,000	0.5%	1,707,000	0.4%	1,512,960	0.3%
관재비	87,348,263	19.2%	92,948,364	19.4%	117,618,837	27.1%
특별헌금지출	4,068,000	0.9%	0	0.0%	0	0.0%
전도비	50,261,170	11.1%	49,900,160	10.4%	41,263,800	9.5%
나눔봉사비	84,279,680	18.6%	85,667,400	17.9%	59,992,360	13.8%
예비비	6,546,000	1.4%	3,734,000	0.8%	3,351,000	0.8%
합계	454,115,983	100.0%	478,207,104	100.0%	433,345,819	100.0%
			5.31%		8.74%	(년단위환산기준)
차기이월	400,051		7,390,586		11,865,882	
총 합 계	454,516,034		485,597,690		445,211,701	

3. 비율(Ratio)과 추이(Trend) – 지출

항목	2009년		2010년		~2011/10	
예배비	7,533,320	1.7%	7,717,420	1.6%	3,941,780	0.9%
목회비	156,391,400	34.4%	170,720,000	35.7%	153,285,000	35.4%
교육비	32,519,770	7.2%	40,756,630	8.5%	31,493,372	7.3%
친교비	22,985,380	5.1%	25,056,130	5.2%	20,886,710	4.8%
문화비	2,183,000	0.5%	1,707,000	0.4%	1,512,960	0.3%
관재비	87,348,263	19.2%	92,948,364	19.4%	117,618,837	27.1%
특별헌금지출	4,068,000	0.9%	0	0.0%	0	0.0%
전도비	50,261,170	11.1%	49,900,160	10.4%	41,263,800	9.5%
나눔봉사비	84,279,680	18.6%	85,667,400	17.9%	59,992,360	13.8%
예비비	6,546,000	1.4%	3,734,000	0.8%	3,351,000	0.8%
합계	454,115,983	100.0%	478,207,104	100.0%	433,345,819	100.0%
			5.31%		8.74%	(년단위환산기준)
차기이월	400,051		7,390,586		11,865,882	
총합계	454,516,034		485,597,690		445,211,701	

● 파악한 정보?

- 수입액 증가율에 비례하여 지출하나, 2011년은 지출규모가 수입대비 감소상태이다
- 2010년 교육에 비중을 두었으나 2011년은 다시 감소추세이다
- 2011년 관재비용의 지출이 증가 하였다
- 전도비, 나눔봉사비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 질문들?

- 친교비의 비중 감소는 교인수 감소로 인한 것인지? 경비 절감으로 인한 것인지?
- 주일학교 1인당 지출규모는 감소하였는지 아니면 증가하였는지?

4. 상관관계(Correlation) – 지출

국내선교비	7,550,000	9,900,000	5,340,000
국외선교비	31,921,170	29,181,400	32,172,000
일반장학비	15,420,000	16,600,000	8,059,200
장년교육비	8,323,770	7,208,840	8,076,420
국내선교대상	15	20	20
국외지원선교사	6	6	6
일반장학생수	5	6	4
등록교인	428	453	512
등록교인당 평균선교비부담액	92,222	86,272	73,266
국내 선교사 1인당 지급액	503,333	495,000	267,000
해외 선교사 1인당 지급액	5,320,195	4,863,567	5,362,000
1인당 장학금 지급액	3,084,000	2,766,667	2,014,800
등록교인 1인당 교육비	19,448	15,914	15,774

그룹별 Q&A 및 전체토론

황병구 본부장

한빛누리 재단



목적(사명) ■

한국교회가 재정을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온전한 교회로서 대사회적 신뢰를 받도록 한다.

운동전략 및 실행계획 ■

연구와 개발

- 성경적 교회재정관 정립
- 한국교회 교회재정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 모범사례 발굴
- 대안제시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배포 및 홍보

- 홈페이지 운영
- 재정사용 원칙제시
- 재정정관 및 조례 보급
- 재정관리 매뉴얼화 및 책자보급
- 회계프로그램 보급 및 재정담당자 교육

교회현장 운동

- 목회자납세 운동
- 재정결산서공개 운동

교육과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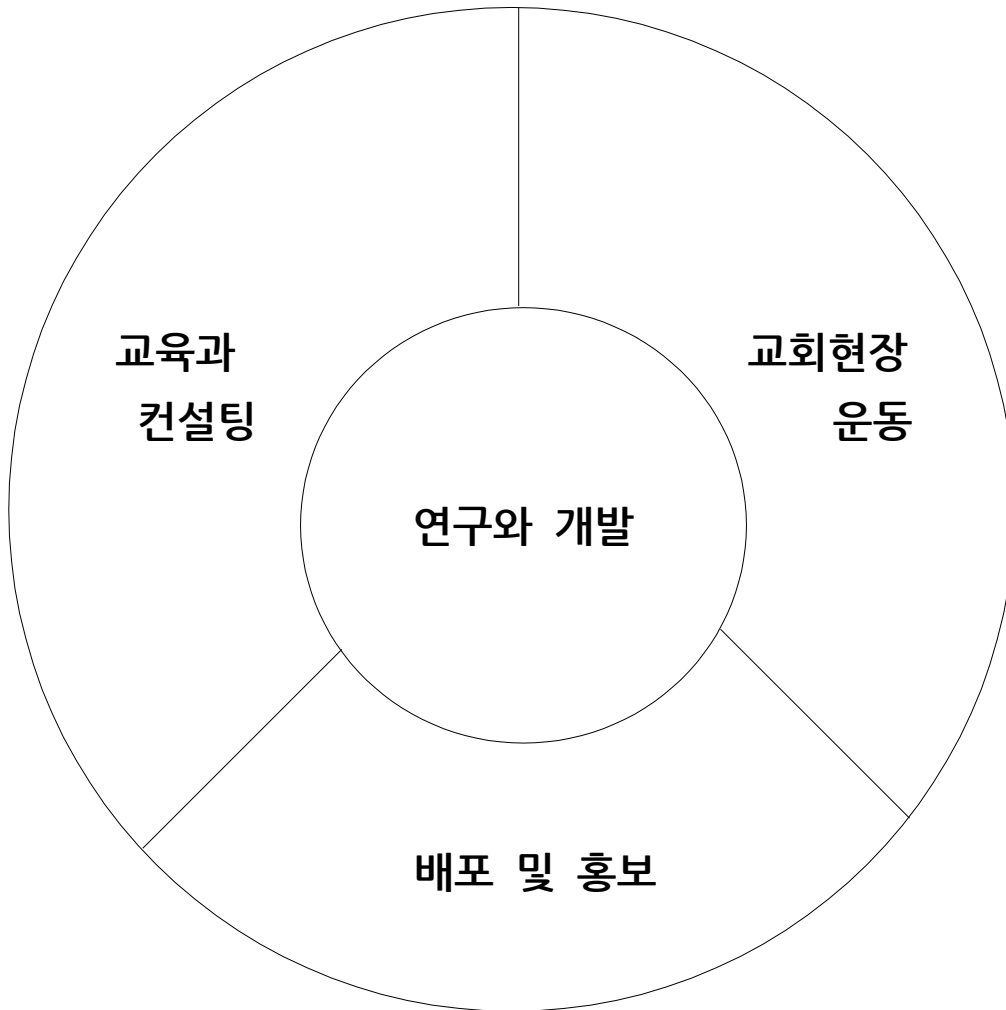
- 세미나 및 강좌 개최 및 연구물 발표
- 재정문제 상담
- 건강한 역할모델 육성

전화_02-741-2793

팩스_02-741-2794

홈페이지_www.cfnet.kr

이메일_protest@protest2002.org



mission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2005년 발족하여,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나눔과셈, 바른교회아카데미, 한빛누리 등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한국교회 구조회복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회재정운영에 있어 성경의 원리에 근거하여 건강하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하여 도출된 결과들을 교육하고 배포하고 실천하여 교회현장에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가는 운동을 합니다.

활동연혁 ■

2005년	8월 18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바른교회아카데미가 연대하여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를 결성하여 활동시작
2006년	4월 10일	목회자 세금 납부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회 개최 (기윤실 주관)
	4월 26일	성경적 재정원칙 세미나 (기윤실 주관)
	8월 10일	한국교회 재정운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회개혁실천연대 주관)
	12월 1일	바른 재정 세미나 (바른교회아카데미 주관)
2007년	5월 11~12일	교회개혁 희망네트워크 전국포럼 개최 (교회개혁실천연대 주관)
	11월 8일	교회재정운영 규정 발표 기자회견 (교회개혁실천연대 주관)
	11월 8일	투명한 재정이 교회를 살린다 세미나 (바른교회아카데미 주관)
2008년		(재)한빛누리 단체 참여
	4월 22일	교회재정운영 규정에 관한 공청회 (기윤실 주관)
	6월 26일	목회자 납세 설명회 (교회개혁실천연대 주관)
	10월 20일	목회자 납세 설명회 “대구” (교회개혁실천연대 주관)
	11월 27일	교회 재정 세미나 “감사의 정석” (바른교회아카데미, 한빛누리 주관)
2009년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단체명을 “교회재정건강성운동”으로 변경
	11월 13일	교회 재정 세미나 “예산의 정석” (바른교회아카데미, 한빛누리 주관)
2010년	11월 11일	교회 재정 세미나 “회의의 정석”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주관)
2011년	11월 10일	교회 재정 세미나 “재정보고의 정석”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주관)

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함께하는 단체들 ■

교회개혁실천연대

주소_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4-1번지 307호
전화_02-741-2793 팩스_02-741-2794
홈페이지_www.protest2002.org 이메일_protest@protest2002.org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소_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전화_02-794-6200 팩스_02-790-8585
홈페이지_www.cemk.org 이메일_cemk@hanmail.net

나눔과셈

주소_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7-17번지 에프오빌딩 502호
전화_02-565-5886 팩스_0505-567-0691
홈페이지_www.nanumsem.kr 이메일_ngo114@gmail.com

바른교회아카데미

주소_서울시 중구 남산동 2가 19-8번지 청어람, 바른교회아카데미
전화_02-777-1333 팩스_02-319-1103
홈페이지_www.goodchurch.re.kr 이메일_gcacademy@hanmail.net

한빛누리 재단

주소_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7가 서광빌딩 305호
전화_02-924-0240 팩스_02-924-0243
홈페이지_www.thebrightfoundation.org 이메일_thebrightfd@gmail.com

재정세미나 정석시리즈 ■

2008년 감사의 정석
2009년 예산의 정석
2010년 회의의 정석
2011년 재정보고의 정석

* 자료집은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홈페이지_<http://www.cfnet.kr>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